

사조위 김해공항 에어부산 사고조사 현황

-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사조위”)는 ‘25.1.28(화) 22:15분경 김해국제공항(국제선 55번 주기장)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,

* (항공기 정보) 에어부산 391편 / 부산→홍콩(HL7763) / (기종) A321-200
(피해규모) 176명(승무원 6명 포함) 전원생존, 일부 승객 경상
화재로 인해 항공기 전소(양측 날개 및 엔진은 미손상)

- 당일 사고조사단을 구성하고 ‘25.1.29일 05:55분 경부터 현장 확인, 승무원 진술, 기타 관련 자료확보 등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초기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

- 사조위는 1.30일 관계 전문기관(국립과학수사연구원, 경찰 과학수사대, 소방)과 화재감식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* 후, 프랑스 사고조사당국** (BEA)과 사고조사 진행 방향에 대한 회의를 하였으며,

* ‘25.1.30일 사전회의(2회 : 10시, 14시) 및 사전 현장점검(11:30경)

** 국제규정에 따라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인 프랑스(BEA)가 사고조사에 참여(신임대표 1명 포함 총 10명), ‘25.1.30 16시 회의 실시

-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앞서 1.31일 오전에 사조위와 BEA측 전문가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후에 본격적인 합동 화재감식 등 조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

- 대형화재가 발생한 항공기에는 현재 연료 약 35,900lbs(파운드)와 승객용 비상산소용기 등 위험물 등이 실려 있는 상태로, 현장조사 중 폭발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체 화물칸 손상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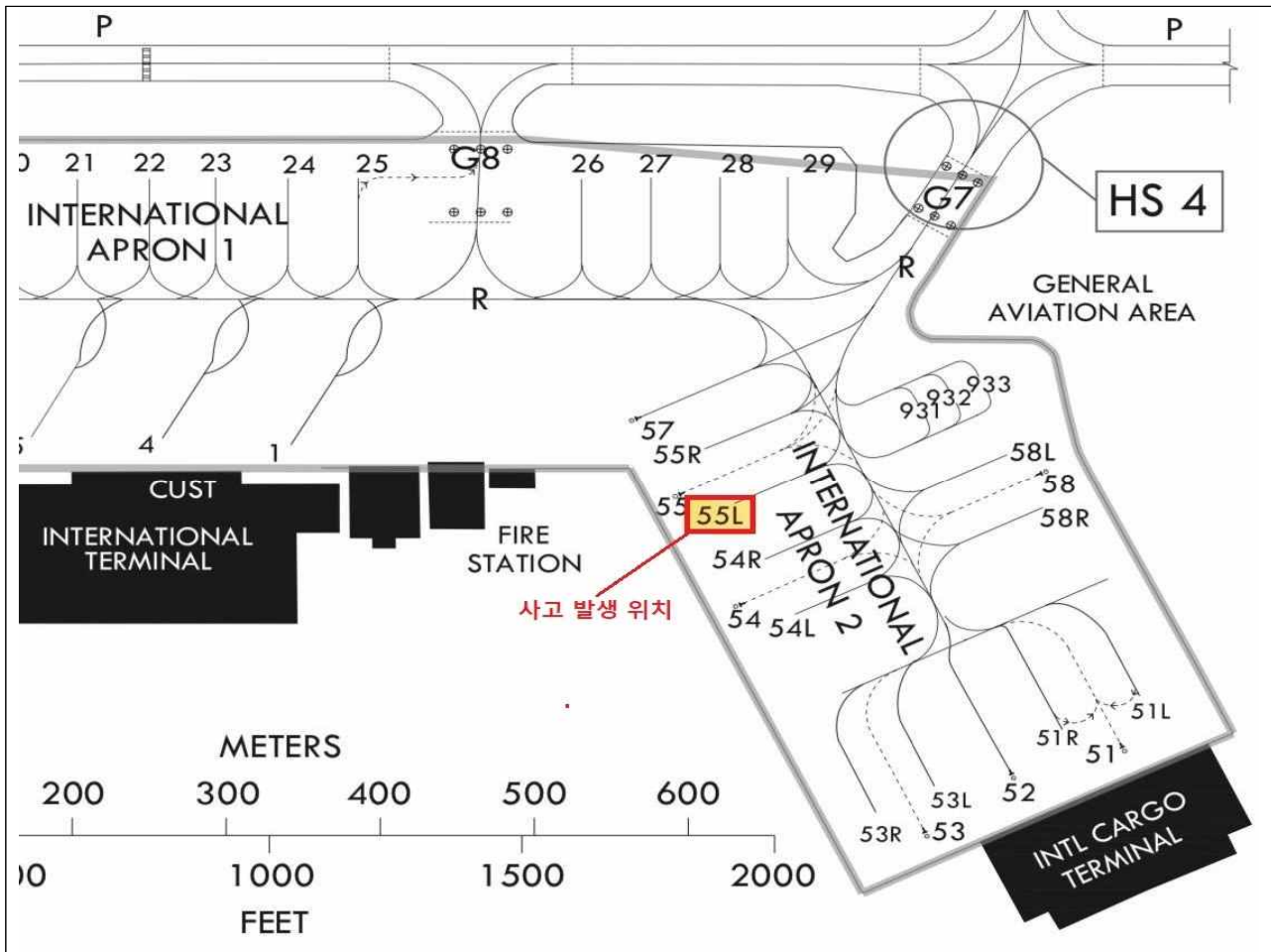
점검, 항공기 연료 제거 필요성 유무, 비상산소용기 분리 조치 등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한 상황으로

- 안전조치 후 연료배출이 필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 및 BEA와 합동 화재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,
- 기체, 화물칸 등에 대한 점검 후 화물칸이 화재에 대한 연관성 등을 조사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승객에게 반환 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	책임자	사무국장	김수정 (044-201-5422)
			사무관	배기후 (044-201-5447)

참고 1

사고 발생 위치



참고 2

사고기 사진

